

한라포커스 해저 쓰레기장 전락한 제주항 <하>

내항 오염관리·수질대책 선행돼야

외항에 집수정 설치해 깨끗한 물 이용 바람직
 인천시 소래포구 바닷물 정수·살균처리해 공급
 삼척시는 해수인입관 통해 물 끌어올려 제공



제주항 내항에 설치된 해수취수관 유입구 모습. 유입구 주변에 각종 오염물질들이 가득 차 있다.

해양탐사특별취재팀

제주항 서부두 내항의 바닷물을 사용하고 있는 서부두 명품횃집거리 횃집들이 깨끗한 바닷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질 관리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2016년 고시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복원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관할 해역에서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복원 범위를 보면 ▷ 해양공간 중 해수욕장 및 면허수면 ▷ 항만 전수시설에 인접한 해역 ▷ 이항법 가능시설 중 수산물유통·판매·보관 시설을 위한 인·배수시설, 종묘생산 시설, 종묘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 시설 등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접해역이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최근 10년동안 수산물 판매시설 인접해역인 제주항 내항에 대한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복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

화·복원사업은 오염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시공 및 모니터링으로 구분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에는 ▷ 지구굴리 조사, 해저퇴적물 조사 ▷ 해저퇴적물 주요 오염물질 조사 및 오염평가 ▷ 주요 오염원 조사 및 오염원차단 방안 ▷ 정화·복원 타당성 검토 및 대상물량 기초산정 ▷ 수거퇴적물 처분대안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서부두 명품횃집거리 횃집들이 모래정화장치를 이용해 바닷물을 정화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부유물질 정화수준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바닷물에 인체에 유해한 미세플라스틱 등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횃집 수족관수 수질검사 항목은 대장균수와 세균수 검사에 그치고 있다. 중금속과 기름 성분, 미세플라스틱성분 등 다른 항목에 대한 검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

고 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현행법에 대장균과 세균수의 다른 오염 항목에 대한 검사는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오염이 우려되는 횃집 수족관수인 경우 중금속 검사와 기름성분 검사, 미세플라스틱성분 등 다른 항목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는 제주항 내항보다는 외항의 바닷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부두 물양장에 대형 바닷물 집수정을 설치해 정화 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인천시 해수사업소는 하루 2차례만 조 때마다 소래포구 인근 바닷물을 취수해 침수·모래 여과·정수·살균 등 6단계의 처리 과정을 거쳐 정화한 해수를 인근 소래포구종합어시장 횃집이나 상점에 24시간 공급하

고 있다. 삼척시는 집수정 방식의 해수 인입관을 설치해 바닷물을 횃집에 공급하고 있다. 해수 인입공법은 바다 인근 부지에 집수정을 설치해 자연 압력으로 해수를 끌어들이는 공법이다. 기존 취수공법은 여름철에 일정한 수온을 유지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이 집수정 공법은 깊은 수심에서 해수를 취수할 수 있어 수온이 일정하고 안전한 수질의 바닷물을 횃집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내 한 해양전문가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높고 있지만 제주도 당국의 안전한 행정이 걸치면서 횃집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내항 오염 관리와 동시에 깨끗한 해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서부두 물양장에 대형 집수정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고대로·이태윤 기자

후반기 제주도의회 의장 좌남수 내정

민주당 의원총회서 합의추대...새 원내대표에 김희현 의원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4선의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제주시 한경·추자면·사진)이 사실상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좌남수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추대했다. 후반기 첫 원내대표에는 3선의 김희현 의원(제주시 일도2동)이 선임됐다.

의원총회에 앞서 당내에서는 의장 후보로 좌 의원과 함께 3선인 김용범 의원이 거론되면서 경선 가능성이 제기됐다. 자칫 경선 후유증에 따른 당내 갈등이 우려됐지만 표결없이 합의 추대로 마무리됐다. 이날 의총에서 좌 의원과 김 의원이 추천됐지만 김 의원이 '통 큰 양보'를 한 셈이다.

의장 후보와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임되면서 후반기 원구성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총 직후 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가진 정민구 원내 부대표는 "현재 원내대표와 차기 원내대표, 의장이 후반기 원구성에

나서게 된다"면서 "미래통합당과 교섭을 마무리 하고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이 선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6개 상임위원장, 상설특위인 예결특위위원장 경쟁은 치열하다. 대부분 초선의원들의 몫이 될 전망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어느정도까지 양보할지가 관건이다.

제주도의회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제384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행정시장 예정자 음주전력 등 논란 불가피

제주도의회, 26일·29일 연이어 인사청문

음주운전 전력으로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는 민선7기 제주도정 후반기 행정시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과 29일 차례로 열린다.

청문회를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와 김태업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회전문-측근 인사 비판과 지명 철회 촉구를 비롯해 도덕성 흠결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치열한 청문회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김 서귀포시장 예정자의 경우 언론을 통해 아들 취업 문제와 편법중여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날 선 검증이 예상된다.

공모 전부터 지역 정가에서 '사전 내정설'이 나돌았던 후보자들이 최종 내정되면서 '무늬만 공모'라는 비판 속에 '인사청문 무용론'과 맞물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필요성도 이번 청문회에서 쟁점화 될 전망이다.

두 예정자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지역사회 비판 여론을 키웠다. 안 예정자는 20여년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과 음주운전 전력

이 있으며, 김 예정자는 지난 3월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이와관련 결산심사가 진행된 제주도의회 6월 정례회에서는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후보자를 추천한 인사위원회의 중립·독립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안 예정자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정부부지사 인사청문회에서 적격판단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청문회에서도 큰 쟁점 없이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두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의 '적격, 부적격' 판단결과를 떠나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최종 임명 여부도 관심사다. 적격성 논란과 지명 철회 요구 속 '안하무인식' 인사행정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임명이 강행될 경우 의회와의 갈등 심화 등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도, 부동산 가격공시제 개선 정부 건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도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수급 탈락자가 발생하면서 피해구제를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매년 1월 1일 공식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기

준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주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지가 인상으로 기존의 기초연금 탈락 및 건강보험료 인상 등 여러가지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5년 12.46%, 2016년 27.77%, 2017년 19.00%,

2018년 17.51%, 2019년 10.70%, 2020년에는 4.48% 올랐다.

도는 이로 인한 피해 현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과 함께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행 8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국탁기자 haru@ihalla.com

준공완료 즉시입주

영도갤럭시타운

내 맘에 쏙드는 "도련 영도갤럭시타운"의 주인이 되십시오!

- 84형(12세대) - 계약면적 144,4326㎡
- 78형(32세대) - 계약면적 133,6944㎡
- 65형(2세대) - 계약면적 110,3021㎡
- 53형(2세대) - 계약면적 91,6100㎡

- 시행사 : 태영건설주식회사
- 시공사 : (주)영도종합건설
- 주소 : 제주시 도련리동 2873

문의 T.064) 759-2411, 010-4578-5005

*본 홍보물의 CO, 이미지, 내용 등은 소위계약 체결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것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것인 오차의 범위 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명에 따른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본 홍보물은 인쇄제거대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현장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